

버어리종 잎담배의 주맥비율에 대한 형질 상호 관련성

정석훈* · 조천준¹⁾ · 최상주 · 장여규

KT&G 중앙연구원 원료연구소, 연구기획실¹⁾

버어리종 잎담배는 원료엽 이용성 제고를 위해 재배기술 및 신품종 보급에 따라 주맥 비율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. 수원등 4개 지역에서 시험 재배한 Br21, KB 108, KB111, KB301 품종을 재료로 주맥비율을 조사하였다.

엽분(하엽, 중엽, 본엽, 상엽)의 엽장은 39.5~77.0cm 범위로 평균 57.43cm였으며 주맥비율은 19.60~42.30%로 평균 31.63%였다. 엽의 중앙부위 엽육의 단위엽면적중은 0.30~0.94 g/100cm²로 평균 0.51 g/100cm² 이었다.

주맥비율과 관련이 높은 형질은 지역간 차이가, 그리고 엽장, 주맥의 무게, 주맥비율 등에서는 품종간 차이가 인정되었으며 주맥비율은 지역x품종, 지역x엽분에서 상호작용이 인정되었다. 한편 주맥비율의 품종 및 지역에 관한 T-검정 결과 Br.21과 KB301품종간 그리고 정읍과 홍성, 정읍과 전주 지역에서 차이가 있었다. 주맥비율은 엽장과 정의 상관성이 그리고 엽의 부위별 엽육무게와 유의한 부의 상관성이 인정되었으며 주맥의 무게는 엽장, 엽의 전체무게 및 주맥기부의 두께와 부의 상관성이 인정되었다.

시험품종 중 주맥비율은 KB301에서 32.5%로 가장 높았으며 그 외는 비슷하였고 엽분에서는 중엽이 가장 높았다. 엽육의 단위엽면적중은 엽분별, 엽의 부위별(기부, 중위, 엽선) 무게에서 차이가 있었다.